

적극적 생존을 위한 뫼비우스의 띠: 어드릭의 『라운드 하우스』에 제시된 법과 아니시나아베 정의의 관계

정진만

(영남대학교 부교수)

◆ 국문초록

이 글은 루이스 어드릭의 『라운드 하우스』가 북미원주민 아닌 남성들이 원주민 여성들에게 가하는 성폭력으로부터 이 여성들을 보호하는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법처리 절차에 존재하는 사법권의 혼란을 어떻게 심문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법적 환경의 변화를 통해 원주민 여성들의 능동적 생존을 그리는지 탐색한다. 주장하건대, 어드릭은 린든(제럴딘을 강간한 백인)에 대한 결함 있는 법적 처리에서 드러나듯이 정의/법의 양립 불가능함에 대해 경고할 뿐 아니라 전통적/현대적 부족법의 조정, 그리고 불의의 연방 인디언법들을 바꿔야 한다고 압박하는 것을 통해 법적 환경을 변화시키는 비전을 그린다. 이 연구를 위해, 우선 이 글은 오지브웨 부족 판사 바질 쿠프츠(현대부족법을 대표하고 그 법적 권한이 일련의 연방 인디언법들에 의해 심각하게 약화된, 피해자의 남편)와 조(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서 전통적인 아니시나아베 정의 혹은 위인디구 정의에 호소하는 피해자의 아들) 사이의 긴장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린든, 즉 식민주의적 탐욕과 폭력을 구현하는 만족할 줄 모르는 백인 위인디구를 제거해야 한다고 느끼는 조에 대해 저자가 공감하는 태도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둘째, 이 글은 조가 법적 관점의 차원에서 바질과 연결되었다고 느끼게 해주는 뫼비우스의 띠로서의 타이의 은유를 밝힌다. 이 은유를 통해 독자는 공동체의 지원 속에서 향후 부족 법률가로서의 조가 미국의 입법자들로 하여금 북미원주민의 적극적 생존을 위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상상해볼 수 있다.

주제어 : 어드릭, 『라운드 하우스』, 아니시나아베 정의, 위인디구 정의, 성폭력, 사법권의 혼란

I. 서론

우리는 법이 과연 정의와 일치하는지의 문제를 생각하게 하는 현실과 자주 직면한다. 『라운드 하우스』(*The Round House*)의 저자 루이스 어드릭(Louise Erdrich)이 북미원주민 여성으로서 접하는 현실은 어떤가? 그녀가 이 소설 후기에서 인용한 바에 따르면, 북미원주민 여성은 평생 세 명 가운데 한 명꼴로 강간을 당하며 이것은 다른 일반 여성들보다 2.5배 더 높은 수치로 성폭행에 시달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성폭행의 86%는 원주민이 아닌 남성에게 의해 자행되며 기소당하는 일이 거의 없다(Erdrich 2012b:319).¹⁾ 작품 속에서 바질 쿠티츠(Bazil Coutts) 판사가 아들인 조(Joe)에게 이야기해주는 올리펀트 v. 수콰미시의 연방 대법원 판결은 “북미원주민 아닌 남성들이 우리 땅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들을 기소할 권리를 우리에게서 박탈했다”(Erdrich 2012b:229). 어드릭은 이런 법적 판결이 정의에 부합하지 못하는 현실을 소설에 반영하면서, 독자가 정의/법의 괴리의 난제를 아니시나아베(Anishinaabe)²⁾ 북미원주민 공동체의 고통스러운 경험과 마주하여 숙고해보게 한다. 어드릭은 오지브웨 보호구역 안에서 원주민 여성 제럴딘(Geraldine)을 강간한 백인 남성 린든 라크(Linden Lark)가 범행 장소를 특정할 수 없는 점 때문에 그 어떤 연방, 주, 부족법의 제재도 받지 않아 정의와 거리가 먼 상황을 제시한다. 그리고 작가(Erdrich 2012b:196)는 그 어떤 법도 온전히 어머니를 보호해줄 수 없다는 판단 속에서 그 피해자의 아들이

-
- 1) 어드릭이 언급한 미국 법무부의 통계 자료는 여러 문헌에서 인용된다(Carden 2018:94, Owens 2012:501-502, Szeghi 2018:406, Tharp 2014:27). 오웬스(Owens 2012:501)는 원주민 여성에 대한 성범죄가 “전염병 수준”에 도달했다고 경고한다.
- 2) ‘아니시나아베’는 캐나다와 미국이 접한 오대호 연안에 거주하는 문화적으로 밀접히 연관된 원주민 집단을 가리키며, 여기에는 오다와(Odawa) 혹은 오타와(Ottawa) 부족, 보데와드미(Bodewadmi) 혹은 포타와토미(Pottawatomi) 부족, 그리고 『라운드 하우스』에 등장하는 오지브웨(Ojibwe) 혹은 치페와(Chippewa) 부족 등이 포함된다. 아니시나아베 사람들은 알곤킨어(the Algonquian language)를 공유한다.

부족의 “전통적인 아니시나아베 정의”에 의존해 범인을 살해하는 비극적 상황을 그린다.

이 글은 그동안 문학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법/정의의 불일치 문제를 어드릭이 어떻게 아니시나아베의 사회-역사적 맥락 속에서 제기하며, 그녀 나름의 어떤 방안을 우리에게 들려주거나 묻고 있는지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글은 특히 원주민 여성이 처한 (신)식민주의적 폭력의 위험을 해소하고 원주민의 법적 자주권을 되돌려주는 것이 법/정의의 괴리를 메우는 중요한 방안이라 가정하면서, 어드릭이 재현하는 아니시나아베 원주민의 특수한 맥락 속에서 법/정의의 문제를 생각해본다. 그동안 『라운드 하우스』의 제럴딘처럼 성폭력의 피해자에 초점을 맞추면서 여전히 남아있는 식민주의적 상황과 연방 법들의 결함을 비판하는 논의들이 디어(Deer 2009), 사프(Tharp 2014), 카든(Carden 2018) 등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이 글은 이들의 논의를 참조하면서도, 더 나아가 그동안 제대로 주목받지 못한 관계, 즉 제럴딘의 남편 바질과 자식인 조가 피해자를 둘러싸고 가족으로서 처한 상호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주장하건대, 어드릭은 정의/법의 괴리를 미국 연방 인디언법, 현대 부족법, 아니시나아베 전통 부족법 간의 불일치를 통해 문제 삼고 있지만, 그것에 멈추지 않고 이 세 영역의 변화와 교차 가능성을 그린다. 어드릭은 특히 전통 부족법과 현대 부족법의 교차 가능성을 조와 바질에 대한 인물화를 통해 안과 밖이 교차하는 피비우스의 띠³⁾ 같은 변화의 움직임 속에서 제시한다. 이를 통해 작가는 북미원주민 여성이 (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는 것과 더불어 원주민 공동체의 법적 자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적극적 생존’의 미래를 모색하고 또 촉구한다.

3) 피비우스의 띠는 위상학적 곡면으로서 기다란 직사각형의 띠를 꼬아서 붙인 원의 고리이며, “두 면을 가진 것 같지만 정작은 한 면만 가진”(Evans 1996:116) 까닭에 대립항이 명백히 존재하지 않고 연속적인 것을 보여준다. 이 피비우스 띠에서 한 면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반대쪽 면과 만나 같아지는 것을 보게 된다.

II. 연방법/현대 부족법/아니시나아베 정의 간의 괴리, 그리고 그에 따른 부자간의 간극

우선 이 글의 제목에 제시된 ‘적극적 생존’(survivance)은 제럴드 비즈너(Gerald Vizenor)가 부각시키는 의미, 즉 “부재, 근절, 망각을 딛고 넘어서는 적극적 현존”(Vizenor 2008:1), 혹은 “단순한 생존, 기능, 생계의 본능을 넘어선 적극적 현존”(Vizenor 2008:11)의 의미, 그리고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지배를 거부하는 것”(Vizenor 2008:11)이란 폭넓은 의미를 지님을 밝힌다. 이 글에서 필자는 비즈너와 같은 맥락에서, 어쩔 수 없이 목숨만 부지하고 살아가는 차원이 아니라 (신)식민주의적 역사와 상황 속에서도 정체성을 잃지 않고 부족공동체의 주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원주민의 적극적인 삶의 태도라는 의미로 ‘적극적 생존’이란 표현을 사용하려 한다. 어드릭이 『라운드 하우스』에서 원주민의 이러한 ‘적극적 생존’을 어떻게 모색하고 그 의의가 무엇인지 논의하기 위해선, 출간된 지 10년이 채 안 되는 이 소설의 내용을 먼저 간략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아니시나아베 부족 전통을 소중히 여기며 부족 보호구역으로 돌아와 법률가로 일하게 되는 주인공(일인칭 서술자) 조는 13세 때의 뼈아픈 경험을 회상하며 이야기한다. 1988년 5월 15일 늦은 오후, 부족 등록 전문가인 어머니 제럴딘은 부족 종교의식 성지인 라운드 하우스 근처 어딘가에서 탐욕스럽고 인디언을 혐오하는 백인 남성 린든으로부터 강간과 폭행을 당한 후 구사일생으로 살아남는다. 그녀와 함께 있던 또 다른 원주민 여성 메일라 울프스킨(Mayla Wolfskin)은 그에게 살해당해 매장된다. 사건 발생 후, 제럴딘은 심각한 불안과 공포심, 대인기피증에 일상이 멈춘다. 이는 가족 모두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으로 다가온다. 또 다른 문제는 제럴딘이 피해를 당한 장소가 부족의 신탁 토지, 주 소유 토지, 개인 사유지가 맞물려 있던 곳인데, 그녀가 눈이 가려진 채 강간을 당했기에 정확한 범행 장소를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사법

관할권의 혼란 속에서, 제럴딘의 남편이자 부족 판사인 바질 쿠츠는 부족 내 중대 범죄를 심판할 사법권이 연방 인디언법 때문에 제한되어 있어서 무력하다. 이런 법의 구멍을 잘 알고 있는 린든은 용의자로 잠시 구금된 후 풀려나고, 제럴딘은 또다시 위협에 노출된다. 백인 중심의 주류 사회에서 법이 제럴딘을 지켜주지 못하고 인종적 편견이 만연한 부당한 현실을 절감한 아들 조는 전통 부족법인 “아니시나아베 정의”(Erdrich 2012b:196), 즉 “위인디구⁴ 정의”(wiindigoo justice)(Erdrich 2012b:187)에 호소해 신중히 계획을 세운 후, 부족의 파우와우 전통의식 기간에 린든을 총으로 살해한다. 부족사람들, 즉 친구인 캐피(Cappy), 화이트티(Whitey) 삼촌, 부족경관 빈스 매드웨신(Vince Madwesin), 린든의 쌍둥이 여동생 린다(Linda), 조의 부모 모두 조가 한 일을 알고 있었으나 알리바이를 만들어 주고 증거를 인멸해주는 것 등을 통해 조를 돕는다. 이것은 조가 “백인 위인디구”(Erdrich 2012b:236) 괴물로서의 린든을 처리한 것에 동의했음을 의미한다. 13세의 소년이 감당하기엔 너무 버거운 외상적 경험을 한 조는 자신을 짓누르는 두려움, 고통, 죄책감을 모두 떠안고 삶을 묵묵히, 그리고 끈질기게 견디며 나아가기로 결심한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 놓인 제럴딘 강간 사건은 라운드 하우스 주변 어딘가에서, 사프(Tharp 2014:36)의 표현대로 “법적 중간지대”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이는 당사자인 제럴딘은 물론이고 그녀의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다. 제럴딘이 입을 트라우마는 세빌라노(Sevillano 2016:144)에 따르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의 대

4) ‘위인디구’는 북미대륙 북동부 지역 알콘킨어족 사람들 가운데 전해지던 이야기와 믿음 속의 식인 괴물이다. 본문에서 다시 논의될 이 ‘위인디구’는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불리어 왔다. 프리드랜드(Friedland 2018:20n2)에 따르면, 위인디구 괴물을 가리키는 용어는 ‘웨티코’(wetiko) 이외에도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 “windigo, wendigo, wintego, whitego, windego, wendago, wintigo, wintsigo, wehtigoo, windagoo, windikouk, weendigo, wentiko, wiitiko, whittico, weendegoag, weendago, and weetigo.” 이 글에서는 어드릭이 『라운드 하우스』에서 표기한 ‘위인디구’(wiindigoo) 철자를 따르기로 한다.

표적인 증상을 보인다. 예컨대 그녀는 정신적으로 혼란 상태에 빠지고 우울증, 공포증에 빠지며 식욕과 같은 의욕을 잃고 주변을 지나치게 경계하는 상태에 있다. 카든(Carden 2018:110)은 그녀가 보이는 증상들이 식민지 생존자들에게 나타나는 증상들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한다. 그녀의 남편 바질은 린든이 풀려난 후 식료품점 앞에서 그와 조우하자 극도의 흥분상태에 빠지고, 결국 심장 발작을 일으킨다. 그녀의 아들 조도 가족의 고통에서 예외가 아니다. 세빌라노(Sevillano 2016:149-150)는 독특하게 린든을 죽인 범주자 조의 트라우마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녀에 따르면 조는 그가 원치 않는 악몽과 회상들에 시달리고 두려움, 죄책감에 짓눌리며, 그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알코올에 의존하기도 하지만 효과는 일시적이다. 그녀는 조의 외상이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북미 원주민의 차원, 식민주의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세빌라노의 논의처럼, 제럴딘 그리고 그녀 가족들의 고통은 식민주의적 폭력과 분리되어 이해될 수 없다. 디어는 제럴딘이 당한 것과 같은 강간과 식민주의의 상관성을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표현한다. “강간과 성폭력이 식민주의적 사고방식에 깊이 새겨져 있다. 강간은 식민화의 은유 그 이상이다. 그것은 식민화의 본질적인 부분이다”(Deer 2009:150). 원주민 여성에 대한 백인 남성의 강간이 그 여성의 의지에 반하여 발생할 경우, 그것은 육체적 경계를 넘어서는 침해이자 공격이며 상대방의 존엄을 무시한다는 점에서 식민화의 가장 나쁜 속성을 닮는다(Deer 2009:150).⁵⁾ 『라운드 하우스』에서 라크의 성폭행뿐 아니라, 그의 부모(조지와 그레이스 라크 부부)가 오지브웨 보호구역에서 주유소와 식료품 업체를 운영하면서 원주민을 대상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점, 심지어는 내다 버린 자식이었던 린다에게 남겨진 160에이커의 땅에 눈독을

5) 강간과 식민화의 상관성에 대해 디어와 유사한 논의가 많이 제시된다(Owens 2012:502, Szeghi 2018:406, Carden 2018:106-109, Butt 2015:169). 1864년 11월 29일 샌드크리크 학살 당시 미군 기병대가 샤이엔 부족과 아라파호 부족 여성들의 시신을 성적으로 훼손하기까지 한 만행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브라운 밀러 2018:233-235).

들이는 점들은 라크를 둘러싼 식민주의의 탐욕적 성격을 확연히 보여준다.

소설 속에서 바질이 아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들 가운데 원주민의 토지와 법적 자주권에 대한 연방정부의 침해, 그리고 그것의 합리화는 역사적으로 원주민이 겪어온 식민주의의 역사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Erdrich 2012b:228-229). 예컨대 연방 대법원장 존 마셜(Chief Justice John Marshall)이 지지한 ‘발견의 원칙’, 그리고 원주민의 토지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배권을 지지한 ‘존슨 v 매킨토시’(Johnson v. McIntosh), 그리고 역대 대통령들인 조지 워싱턴, 토머스 제퍼슨의 ‘토지 열풍’⁶⁾ 등이 그것이다. 바질이 들려주는 이런 토지의 착취를 정당화하기 위한 마셜의 논리, 즉 원주민은 야만인이어서 숲에 사는 게 제격이며 토지는 문명인인 백인이 개발해야 한다는 논리, 그리고 야만적인 원주민의 성격과 종교는 열등해서 “유럽인의 우월한 천재성이 끊임없이 지배권을 주장해야 한다”(Erdrich 2012b:229)는 논리는 미국 내 식민주의의 민낯을 잘 보여준다.

그뿐만 아니라 어드릭은 『라운드 하우스』에서 현대 일상의 곳곳에 스며든 식민주의적 태도를 독자가 반복적으로 목격하고 주시하게끔 한다. 성폭행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제럴딘이 병원 응급실에 갔을 때, 한 백인 임산부가 조에게 제럴딘은 인디언 전용 병원에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는다. 1973년에는 오지브웨 종교의식 성지인 라운드 하우스 근처 어딘가에서 텐트 흔들기 의식이 한창일 때 한 백인이 음주 후 돌연 사하기도 한다. 이 의식이 있을 때 음주를 하는 것은 “문화적으로 용인되지 않을뿐더러 심지어 모욕적이기까지 하다”(Erdrich 2012b:53)는 점을 고려하면 백인들이 원주민의 문화를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잘 드러난다. 이 점과 관련해, 성지인 라운드 하우스 근처에서 제럴딘을 성폭

6) 미국 식민지 시절, 조지 워싱턴과 토머스 제퍼슨이 영국 왕 조지 3세의 ‘1763년 선언’을 어기고 애팔래치아 산맥 서쪽의 토지 투기에 열을 올려 상당한 이득을 취한 것에 대해서는 처칠(Churchill 2003:5)이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그에 따르면, 이들과 더불어 당대 젤트리 계층이었던 존 애덤스, 제임스 매디슨 모두 여기에 참여했으며, 1763년 선언을 어기고 토지 소유에 열을 올린 것은 흔한 일이었다.

행하고 그 성지 안에서 그녀와 메일라를 모두 불태워 죽이려 한 린든의 행위는 당사자들에 대한 범죄일 뿐 아니라 원주민 종교, 문화에 대한 식민주의적 모욕이다. “인디언이 종교의식을 할 수 없던 오래전에 (...) 라운드 하우스는 의식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점”(Erdrich 2012b:59), 즉 식민주의적 탄압 속에서 몰래 원주민들이 이들만의 종교와 문화를 지키기 위해 사용한 성스러운 공간이었음을 고려하면, 이런 점은 더욱 분명해진다. 린든에게 살해당한 메일라는 미성년의 상태에서 사우스다코타 주지사인 커티스 옐토(Curtis W. Yeltow)에 의해 인턴으로 고용되어 일하면서 그의 아기를 임신했고, 옐토는 돈으로 그녀를 입막음하려 했다. 그가 선 댄스를 악마숭배라고 간주하고 라코타 땅에 핵폐기물을 묻을 뿐 아니라, 막강한 정치적 권력을 이용해 어린 원주민 여성을 성적인 유희의 대상으로 삼은 일에서 피지배자의 문화적 가치, 자원, 존엄성을 짓밟는 식민주의적 성격은 분명히 드러난다. 주목할만한 점은 소설 속 옐토 주지사의 모델이 되는 인물이 실제 있었다는 것이다. 샤프(Tharp 2014:35)에 따르면, 『라운드 하우스』는 1979년부터 1987년, 그리고 다시 1995년부터 2003년까지 사우스다코타의 주지사였던 윌리엄 잔클로우(William Janklow)가 자신의 집에서 보모로 일하던 원주민 여성 잔시타 이글 디어(Jancita Eagle Deer)를 그녀가 15세 때인 1967년에 강간한 사건을 던지지 암시한다. 이 원주민 여성은 1974년에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이 주지사에 대한 체포나 고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강간 같은 중대 범죄의 사법적 처리에 존재하는 법/정의의 괴리는 연방, 주, 부족 사법권의 어떤 관계 안에서 발생한 것인가? 소설 속에서 바질이 지적한 연방대법원 판결인 올리펀트 v. 수콰미시(Oliphant v. Suquamish), 그리고 조가 지적한 ‘1885년의 중대범죄법’(the Major Crimes Act of 1885), ‘공법 280’(Public Law 280)은 모두 부족의 사법 관할권을 제한한 연방 인디언법과 법적 결정이다. 오웬스는 이 소설에서 두 부자 법률가가 문제 삼는 일련의 연방법들과 판결의 배경을 상세히 다룬다. 부족 토지에서 발생한 중대 범죄에 대한 사법권을 연방 법원

에 부여하는 이 중대범죄법은 오웬스(Owens 2012:505)에 따르면 중요 범죄에 대해 연방이 독점적으로 재판할 수 있는지를 모호하게 남겨놓았다. 그리고 그녀는 1953년에 제정된 공법 280이 부족의 권위를 더욱 침해했다고 지적한다(Owens 2012:507). 소설 속에서 법률가가 된 조에 따르면, 이 법은 “원주민 구역 안의 땅에 대해 몇 개의 주⁷⁾가 형사상, 민사상 사법권을 행사하도록 권한을 주었으며”(Erdrich 2012b:142), “만일 오늘날 원주민을 위해 철폐되거나 개정될 한 가지 법이 있다면 바로 그 대상이 되는 법”(Erdrich 2012b:142)이다.

오웬스는 『라운드 하우스』에서 언급되진 않았지만 역시 문제가 있는 법으로서 1968년 인디언 시민권법을 지적한다. 부족 재판권을 제한한 이 연방법은 부족 법원에게는 정당한 법절차, 배심원 재판, 그리고 미국 법원에서 보장되는 헌법상 권리들을 제공해야 하는 것을 의미했다(Owens 2012:507). 사프(Tharp 2014:27)는 이 법이 정당한 법절차에 대한 헌법적 권한, 배심원 재판, 부족법원에서 재판받는 모든 이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확대시키기에, 이것은 부족이나 주가 이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을 의미했다고 지적한다. 그녀는 또한 부족 법원이 비록 중죄인을 기소할 수 있다 해도 이것은 그 부족법원에 법의 훈련을 받은 판사가 있고 국선변호인 비용을 감당할 수 있으며, 장기간의 모든 서비스가 완비된 감금 시설을 보유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부족은 이런 부분을 감당할 여유가 없기에, 부족에서 발생하는 중대 범죄는 사실상 주 혹은 연방 법원에 맡겨지며, 연방 법원의 경우 재판의 과중한 취급 건수들 때문에 부족 토지에서의 갇힌 사건 같은 경우는 소홀히 취급되는 문제가 있다. 오웬스(Owens 2012:508)는 이 법이 부족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부족법원은 오로지 덜 심각한 범죄들만 다루도록 권한을 제한한다고 비판한다.

서론에서도 언급된 것으로서, 바질이 아들에게 성토한 정의롭지 못한

7) 이 법은 캘리포니아, 위스콘신, 미네소타, 네브래스카, 오레곤, 알래스카 주 정부에 인디언 구역 사법권을 부여한다(Tharp 2014:26).

올리펀트 v. 수콰미시 판결은 원주민이나 부족 구성원이 아닌 피고인들에 대해 부족이 형사상 재판권을 갖지 못한다고 대법원이 결정한 것으로서 부족 법원으로는 매우 치명적인 것이다(Owens 2012:508, Szeghi 2018:421). 『라운드 하우스』가 제기한 문제가 있는 상황, 즉 원주민이 아닌 라크가 부족 토지 안에서 강간, 폭행 등의 중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들을 기소하고 재판할 법적 권한이 없는 상황은 바로 올리펀트의 손을 들어준 이 연방대법원의 결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연방 검사들의 경우엔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범죄 중 원주민이 아닌 범죄자들을 기소할 권한을 갖고는 있지만, 오웬스(Owens 2012:511)에 따르면 이들은 거대한 마약 사건이나 화이트칼라 범죄 등을 담당하길 선호해 인디언 구역의 강간 사건을 기소하길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문제들을 고려하면, 올리펀트 v. 수콰미시의 연방 대법원 결정이 작품 속에서 캐서롤 요리 속 “부패한 침전물의 가장 구역질나는 부분”(Erdrich 2012b:229)에 비유되는 것이 충분히 수긍이 간다. 바로 이런 법적 판결 때문에 높은 강간범죄 피해율에도 불구하고 제럴딘 같은 북미원주민 여성들이 법의 보호에서 외면당하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일련의 연방 인디언법들은 원주민 자치권을 제한하면서 너무 강한 권한을 소유하지만, 부족은 너무 미약하고 무력하기까지 한 법적 권한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조는 부족 판사인 부친이 고작 하나에 15센트 하는 너트 고리쇠 몇 개를 놓고 벌이는 법적 싸움을 해결하거나 핫도그 도둑을 처벌하는 “대체로 사소하고 티무니없으며 보잘것없는”(Erdrich 2012b:48) 경범죄 재판권만 가졌음을 알고 크게 실망한다.

바질 쿨츠는 연방법과 현대 부족법의 비대칭적인 역학관계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해오고 있는 부족 판사이다. 그는 미국 주류의 법체계를 공부해서 법률가가 되었으며(Castor 2018:44), 원주민 주권을 와해하는 법체계와 교섭을 벌여온 인물이다(Carden 2018:104). 미국의 인디언 사무국은 전통적인 아니시나아베 조직과 사법체계를 의도적으로 약화시

켰기에(Fletcher 2017:99-100), 바질은 전통적인 아니시나아베 법의 구조와는 사뭇 다르게 미국 주류의 법체계를 따르는 현대 부족법 체계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현대 아니시나아베 부족 사법체계의 형법은 성문화된 형법 법전을 채택하고 종종 부족이 위치한 주의 형법 법전을 차용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형법과 유사하다(Fletcher 2017:103). 바질은 미국의 주류 법체계에 편입되고 종속된 부족법의 테두리 안에서 부족의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연방 혹은 주의 사법권과 부족의 사법권 간의 너무 비대칭적인 관계 때문에 만족할만한 성과를 끌어내지 못한다. 조는 그런 아버지가 어머니를 지켜주기에 너무 힘이 미약하다는 것 때문에 원망스럽다.

결국, 문제의 연방 인디언법들, 그리고 그것과 불가분하게 연결된 현대 부족법은 모두 제럴딘을 보호하며 린든을 정의의 심판대에 올리기에 적절치 못하다. 어머니를 성폭행한 범인 린든은 일시적으로만 용의선상에 올라 구금되었을 뿐 다시 풀려나 보호구역을 확보하게 되고, 이는 가까스로 아물어가려는 제럴딘의 상처의 딱지를 다시 떼어내는 결과를 가져온다. 불안과 공포 때문에 삶을 온전히 영위할 수 없는 어머니를 바라보는 조는 자신이 그녀를 지키기 위해 무언가 해야만 한다는 절박함을 느낀다. 어머니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힘이 없는 아버지가 아니라 오로지 자신뿐이라 여긴 조가 기대게 되는 것은 바로 아니시나아베 정의이다.

아니시나아베 정의란 아니시나아베 원주민의 사법적 관념을 잘 보여 주는데, 이 전통적인 법과 정의에 관해 연구한 플레처(Fletcher 2017)에 따르면 이는 크게 두 부분, 즉 ‘미노-비마디지윈’(Mino-Bimaadiziwin)과 ‘위인디구 정의’로 나뉜다. ‘미노-비마디지윈’ 개념은 “좋은 삶을 영위하고 균형 잡힌 삶을 누리는 것”(Fletcher 2017:91)을 의미한다. 이 균형 잡힌 삶이란 한 개인과 그를 둘러싼 주변 환경의 모든 대상을 그것이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관계없이 존중하며, 그 환경과 거미줄처럼 연결된 삶을 인정하고 가족, 친족, 공동체와 연결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을 뜻한

다(Fletcher 2017:91). 이 개념은 아니시나아베 법의 철학적 기초를 마련 해주며, 균형이 무너지고 와해된 자에게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치유되도록 돕는 것을 요구하는 정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드물고 극단적인 경우 살인 등의 중대 범죄를 저질러 공동체에 더는 긍정적인 기여를 하지 않고 공동체를 위협에 빠뜨릴 때 공동체는 결정에 따라 그를 추방하거나 처형한다. 이 경우는 플레처에 따르면 두 번째 개념으로서의 ‘위인디구 정의’에 해당한다.

『라운드 하우스』에서 무숨(Mooshum)이 외손자인 조에게 들려주는 아키-나나푸시 이야기에 등장하는 ‘위인디구’는 미국과 캐나다에 걸쳐, 특히 북동부 알곤킨어족 사람들 가운데 몽타네족(Montagnais), 크리족(Crees), 오지브웨족(Ojibwe-Saulteaux)의 이야기와 믿음 속에 존재하던 식인 괴물이다. 위인디구에 대한 기록은 대략 17세기 중반부터 존재해왔는데(Brightman 1988:341), 위인디구가 실제 존재했는지에 대해선 논쟁이 있었다. 마라노(Marano)는 위인디구가 기근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라고 주장했고, 브라이트만(Brightman)은 위인디구 현상이 기근이 없던 곳에서도 발생한 역사적 사실들을 들어 이를 반박한다(Brightman 1988:338, Brightman et al. 1983:120). 브라이트만은 위인디구 개념을 북동부 알곤킨어족 사람들의 구조적 이데올로기, 문화적 관념으로 이해한다(Brightman 1988:338, Friedland 2018:28). 그에 따르면, 위인디구는 식인 괴물이며 신체적으로나 행동 면에서 기괴하고 커다란 영적, 신체적 힘을 소유한 존재로서, 많은 경우, 한 때는 인간이었으나 불가역적으로 괴물 상태로 변한 존재이다(Brightman 1988:337). 이 괴물의 눈에 띄는 특징은 “양심의 가책 없이”(Fletcher 2017:96-97) 인간의 살과 피를 끊임없이 갈구한다는 점이다. 사프는 위인디구가 “탐욕으로 다른 사람들을 잡아먹는다”(Tharp 2014:33)고 언급하며 이 괴물의 탐욕적 성격을 강조하고, 어드릭이 『라운드 하우스』의 후기에서 위인디구 재현을 위해 참조했다는 프리드랜드는 “*윌티코*[위인디구]를 사회적으로 금기시된 방식으로 자신 그리고(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롭거나 파괴적인 사람들을 가리키

는 **법적인 뫼주**”(Friedland 2018:36, 강조는 원저자의 것)라고 정의한다. 프리드랜드(Friedland 2018:36)는 누군가가 위인디구로 특징지어질 때 사람들은 그를 처리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통감했음을 강조한다. 이처럼 공동체 전체가 위협을 받고 사람들의 도움이 모두 무위로 돌아갔을 때 교란된 균형을 바로잡고자 하는 의무감, 도덕적 정의에 따라 위인디구는 처리되어야 한다고 결정되는데, 이때 이것의 실행은 체계적이며 공동체의 합의와 승인을 전제로 한다.⁸⁾

위인디구 정의가 부족의 합의에 따라 추진되었다는 점과 맥을 같이하여, 『라운드 하우스』에서도 아니시니아베 부족민들은 린튼을 위인디구로 규정한다. 제럴딘은 조에게 이렇게 말한다. “네 아빠가 내게 한 얘기가 있단다. 위인디구에 대해 말이다. 라크가 우릴 잡아먹으려 해, 조. 그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내가 막을 거다. 그녀가 그렇게 말했다. 그를 막을 자는 바로 나야”(Erdrich 2012b:248). 린다도 “오빠에게서 괴물을 보았다”(Erdrich 2012b:300), “그는 여전히 배가 고팠다”(Erdrich 2012b:300)라고 말하며 그를 위인디구로 규정한다.⁹⁾ 바질도 위인디구를 처리했던 아니시니아베 전통 부족법을 언급하는 상황에서 린튼이 바로 위인디구라고 정의한다. “라크는 위인디구 정의(定義)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지”(Erdrich 2012b:306). 백인 위인디구인 “간을 먹는 존슨”(Erdrich 2012b:236)에 대한 무슴의 이야기에서도 그가 붙잡혔지만 “도망쳤다”(Erdrich 2012b:238)는 부분은 린튼이 일시적으로 구금되었다가 곧 풀려나는 이 소설의 상황과 액자구조의 병치를 이룬다. 이들 모두는 과거 선조들처럼 라운드 하우스에 모여 회의를 하지 않았을 뿐 모두 입을 모아 린튼을 위인디구

8) 브라이트만(Brightman 1988:357)에 따르면, 위인디구는 무조건 처벌지향적으로 처리되지 않았다. 부족공동체는 위인디구의 치료와 회복에 힘썼고,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합의에 따라 처리했던 것이다.

9) 비록 린다는 린튼의 쌍둥이 여동생으로서 생물학적으로는 백인이지만 아니시니아베 부족의 앨버트와 베티 위시콧(Albert and Betty Wishkob) 부부에 의해 입양되어 사랑을 받고 살아왔으며 이 부족공동체를 “내 진짜 가족”(Erdrich 2012b:127)으로 여기기 때문에 문화적 정서 면에서 원주민과 같다.

라고 판단한다. 이들 모두에게 위인디구는 탐욕과 폭력의 메타포가 된다.

“인디언 보호구역을 없애버리자”(Erdrich 2012b:52)라든지, “정정당당하게 인디언들을 때려 부수자”(Erdrich 2012b:52)는 구호를 내걸고 정치적 야욕을 품기도 했던 린든은 분명 인디언의 생존을 위협하는 식민주의적 폭력을 체화한다. 또한 그는 메일라 아기의 친부가 엘토 주지사라는 부족민등록문서를 제럴딘으로부터 강제로 입수해 엘토를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려 한 정황도 있는 탐욕스러운 자이다. 이처럼 탐욕과 폭력의 상징, 더 나아가 식민주의적 괴물로서의 위인디구를 의미하는 린든을 처치해야 한다는 “통감하는 의무감”(Friedland 36)은 조의 도덕적 정의 의식을 형성한다. 조는 “복수가 아닌 정의를 위한 것이라 마음 먹은 목적을 위해 전념하는데”(Erdrich 2012b:260), 어드릭의 이런 재현은 그의 행위를 단순한 복수로 환원시킬 수 없게 한다.¹⁰⁾ 린든이 제럴딘 뿐 아니라 아니시나아베 공동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점은 분명하다. 그는 제럴딘을 성폭행하고 불살라 죽이려 했으며 메일라도 죽여 어딘가에 매장했다. 그런 그를 다수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위인디구라 판단하는 점에 비추어 조의 행위는 단순한 복수로 환원될 수 없는 것이다.

강용기(2017:19)는 조가 추구했던 위인디구 정의를 부족의 막장 신조로 간주하며, 이 소설에 “명쾌한 정의 실현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두기를 시도하는 작가의 내밀한 메시지가 함의”(2017:6)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무숨이 들려주는 아키-나나푸시 이야기에 나타나는 버펄로 여인의 가르침, 즉 “위인디구 정의를 실행함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버펄로 할머니의 가르침은 그대로 이 소설 속에서 린든(Linden)을 살해하는 13세 소년 조와 그의 친구 캐피에게 주는 작가의 충고를 암시한다”(강용기 2017:9). 하지만 “아키-나나푸시 설화는 확실히

10) 조의 행위가 단순한 복수로 간주될 수 없음은 여러 논의에서 제시된다(Fletcher 2017:98, Szeghi 2018:417). 세빌라노(Sevillano 2016:142)의 경우 조의 행위를 단순 복수로 해석하는 매치(Matchi), 그린야(Greenya)의 해석을 비판하며 어드릭이 조를 단순히 복수하는 폭력적이고 복수심에 사로잡힌 인디언으로 전형화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히 위인디구 정의의 위협성을 경계하는 내용”(강용기 2017:16)이라 해석하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어드릭이 위인디구 법의 절차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다고 소설의 후기에서 감사의 말을 전하는 아니시나아베 법학자 보로우스(Borrows)의 저서 『법을 이끌어내기』(*Drawing Out Law*)는 위인디구를 처리하는 아니시나아베 부족의 정의와 법이 신중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며, 현대사회에서 주목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Borrows 2010:226). 위인디구를 처리하는 부족의 정의, 혹은 조의 행위는 아키-나나푸시의 이야기에 나오는 버펄로 여인의 언급, 즉 “위인디구 정의는 상당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추구되어야 한다”(Erdrich 2012b:187)는 말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버펄로 여인은 위인디구를 다루는 정의가 부족민들이 동의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진행되어야 하며, 그런 중요한 정의 추구에 필요한 장소, 즉 합의를 끌어내는 “올바른 방법”(Erdrich 2012b:187)의 부족 회의의 장소로서 라운드 하우스가 세워져야 함을 이야기한다. 마찬가지로 조의 아니시나아베 정의 추구는 상당히 신중하게 오랜 시간의 장고를 거쳐 이루어지며, 캐피, 화이트리 삼촌, 부족 경관, 린다, 제럴딘, 바질 같은 공동체 구성원들은 그런 조의 행위에 암묵적으로 동의한다. 이것은 전통적인 위인디구 정의 추구가 합의로 이루어졌다는 점과 일맥상통한다.

강용기(2017:13-14)는 또한 주인공 조를 과격하고 무모한 믿을 수 없는 서술자로 간주한다. 하지만 조가 믿을 수 없는 서술자인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상당 부분 어드릭이 그를 전형화된 인물로 그리지 않으려는 인물화 전략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 같다. 비록 13세의 조는 사춘기에 접어들어 성적 호기심이 왕성하며 소냐(Sonja)에게 스트립쇼를 보여달라 떼쓰는 아이의 일면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그런 점을 부끄럽게 여기고 “한동안 그것을 숙고한 끝에 사실 평생 더 나은 사람이 되길 원했던”(Erdrich 2012b:223) 복합적이고 원형적인 인물(round character)이다. 중요한 점은 조가 소설 전반에 걸쳐 명시적으로나 암시적으로, 그리고 13세 소년의 눈에 비친 시선이나 성인의 회고적 사색을 통해 식민주의

가 원주민들 일상의 곳곳에 존재함을 직시하고 그것에 대해 비판적인 의식과 목소리를 드러낸다는 점이다. 단적으로 조가 <넥스트 제너레이션>에 빠져있던 이유를 “그 속에서 우리는 여위지도, 괴롭힘을 당하지도, 어머니를 잃지도, 무섭지도 않았기 때문”(Erdrich 2012b:20)이라 이야기할 때, 그가 직면한 식민주의적 현실에 대해 독자에게 큰 여운을 남긴다. 조가 사제관 뒤편의 묘지를 외경하는 이유로 그곳이 무숨의 부친(조의 외증조부)이 메이티 원주민 지도자 루이 리엘(Louis Riel)과 함께 바토시에서 투쟁하다 죽어 묻힌 곳이며, 후프덴스 지역에서 백인 폭도들에게 집단 린치를 당해 죽은 세 사람 중 한 명도 그곳에 묻혔기 때문이라 언급할 때는 그의 역사의식을 엿볼 수 있다(Erdrich 2012b:99).¹¹⁾ 이런 점에 비추어 어드릭의 목소리를 상당 부분 내고 있는 조를 믿을 수 없는 서술자로 규정하는 해석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작가의 목소리를 무게 있게 반영하는 서술자의 면모들이 그의 어린 시절의 부분적인 무모함이나 결함으로 온전히 말소될 순 없는 것이다.

필자는 조가 린든을 죽이는 것이 어머니를 강간한 범인에게 단순히 복수하는 것이라기보다 식민주의적 탐욕과 폭력을 상징하는 괴물을 신중히 처리해 제거하는 정의 추구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간주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어드릭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시스템을 통해 정의를 찾을 수 없을 때 그들만의 방식으로 정의를 추구할 개인적 필요성”(Erdrich 2012a)을 언급하면서, 조의 위인디구 정의 추구가 린든을 죽이기에 비록 유감이지만 불가피한 일이었음을 시사한다. 연방의 법이 (성)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가해자와 다시 조우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다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자경주의적 행위

11) 어드릭은 2008년에 출간한 『비둘기 재앙』(*The Plague of Doves*)에서 이미 리엘의 1885년 바토시 전투와 1897년 폴 홀리 트랙(Paul Holy Track) 린치 사건 모두를 다루는데, 특히 후자는 “홀리 트랙”(Holy Track) 장의 이야기의 모델이 된다(Erdrich 2008:54-79). 『라운드 하우스』에서 린든의 종조부가 이 린치사건에 가담했고 아무런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점은 라크 집안의 식민주의적 성격과 법의 부당함을 모두 이야기해준다(Erdrich 2012b:211).

를 하는 것은 절박한 생존의 몸부림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주장하건대, 이 소설에서 어드릭이 보여주는 창의적인 부분은 바로 아니시나아베 전통 이야기인 위인디구 전설 속 괴물을 만족할 줄 모르는 식민주의적 탐욕, 폭력성과 결부시켜, 이 괴물을 제거하는 행위를 사법적 차원의 정의와 연결짓는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대로, 독자는 『라운드 하우스』에서 제럴딘을 강간한 린든의 범죄에서 법/정의의 괴리, 그에 따라 아버지에 대해 아들이 갖는 거리감, 더불어 현대 부족법의 결핍과 나약함을 보게 된다. 하지만 이후 다루게 될 것으로서, 저자는 이런 문제점들을 보여주는 것에 멈추지 않고 아버지와 아들의 상호이해와 변화의 가능성을 통해 부족법(더 나아가 연방법)이 원주민의 법적 자주권을 회복해 법이 정의를 좀 더 아우르는 비전을 그린다.

Ⅲ. 현대 부족법과 아니시아아베 정의의 뫼비우스 띠 관계, 그리고 그에 따른 부자의 상호이해와 적극적 생존

플레처는 「아니시나아베 법과 『라운드 하우스』에서 전통 부족 정의와 현대 부족 정의 혹은 사법 체계 간의 충돌에 초점을 맞춘다. 그는 두 사법적 정의 간의 “충돌”(Fletcher 2017:105)을 논의하는 장에서 “현대 아니시나아베 부족의 사법 시스템이 전통적인 아니시나아베 법적 구조와 급진적으로 다르다”(Fletcher 2017:102, 강조는 필자의 것)고 언급하면서, 『라운드 하우스』가 두 체계 사이의 “긴장”(Fletcher 2017:109)을 드러낸다고 강조한다. 한 편으로 필자는 조가 위인디구 정의에 호소하고 바질은 ‘더린 피스, 원고 v. 빙고 플레이스, 라이먼 라마르틴, 피고’의 재판 혹은 ‘토미 토마스 외, 원고 v. 빈랜드 슈퍼 마트 외, 피고’ 등의 재판에서 보여주듯이 원고와 피고가 적대 관계에서 다툼을 벌이는 당사자주의적 체계(adversarial system) 안에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플레처의

논의에 동의한다.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 필자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두 사법적 정의 체계 간에 만나는 또 다른 가능성을 어드릭의 소설이 드러낸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전통적인 부족 정의와 현대 부족법을 각각 나타내는 조와 바질 쿠츠 판사가 서로의 입장을 수용해 ‘피비우스의 띠’처럼 안팎이 교차하는 움직임은 보여주는 데에서 나타난다.

우선 사법적 정의에 대한 바질 쿠츠 판사의 변화된 태도는 조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정의가 잘못된 것이지만 바질 자신이 몸담은 사법체계의 미궁을 해결한다고 인정하는 데에서 나타난다.

라크를 살해한 것은 이상적 정의에 기여하는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법의 난제를 해결해준다. 그것은 라크가 기소되지 않았던 수단인 토지구역 관련 법이 지닌 불공정한 미궁을 빠져나가게 해주었지. 그의 죽음은 출구였다. 난 이 사태의 해결을 흐리는 어떤 것도 말하거나 하지 않을 테다. (Erdrich 2012b:306)

바질은 자신의 사법적 정의가 “최선의 정의”(Erdrich 2012b:306)를 추구해왔지만 그것과 다른 또 다른 정의로서 “이상적 정의”(Erdrich 2012b:306)가 존재하며 이 정의가 비록 죽음이라는 극단의 결과를 가져오는 비극적인 것이지만 사법권의 혼란(jurisdictional maze), 미궁을 해결해주고 있음을 조 앞에서 인정한다. 그리고 그는 린든을 살해한 자가 누구인지 진행하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기로 결심한다. 미국 주류의 현대 법체계를 공부해서 법률가가 된 그가 조의 정의 추구 방식에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 그는 왜 이런 변화를 보여주는 것일까?

난 라크를 죽이진 않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었기에, 그 과업을 이룬 사람을 적어도 보호해줘야 한단다. 난 법적 전례를 주장해서라도 그렇게 할 거다.

네?

전통적인 선례 말이야. 라크는 위인디구 정의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지. 그리고 그의 죽음은 다른 어떤 것에 기대지 않고 아주 오래된 법의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주장이 될 수 있단다. (Erdrich 2012b:306)

위의 인용에서 드러나듯이, 바질은 마음속 깊이 린든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실행에 옮긴 자를 선뜻 처벌할 수 없으며 그를 보호해야 한다는 일종의 ‘통감하는 의무감’을 갖는 것이다. 이것은 린든을 처리해야 한다고 조가 느꼈던 의무감과 크게 다르지 않다. 더불어, 사법관할권을 결정할 수 없는 혼란 속에서 린든을 정의의 심판대에 올리는 것이 현대 부족법으로는 불가능한 한계, 즉 “토지구역 관련 법이 지닌 불공정한 미궁”(Erdrich 2012b:306)에 봉착해 그는 전통적인 아니시나아베 사람들의 위인디구 정의가 대안이 될 수 있으며, 그 위인디구 범주에 린든이 포함된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독자는 이제 아니시나아베 사람들이 위인디구를 그들의 사법체계 절차에 따라 처리했던 “전통적인 판례법”(Erdrich 2012b:307)을 생각해낸 바질 쿼츠 판사가 위인디구 같은 식민주의적 괴물을 처리한 조와 가까워지는 것을 보게 된다. 이 순간 바질의 현대 부족법은 조의 전통적인 아니시나아베 정의, 혹은 위인디구 정의와 뫼비우스의 띠처럼 안팎이 교차하며 경계가 불분명해진다.

뫼비우스의 띠처럼 교차하는 움직임은 조에게도 나타난다. 과거의 조는 비록 아버지가 부족 판사로서 하는 일이 “대체로 사소하고 터무니없으며 보잘것없는”(Erdrich 2012b:48) 것이라 여기고 아주 먼 거리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성장소설의 주인공처럼 성인이 되어 부친처럼 법률가가 된 조는 “그것이 비록 작거나 사소하거나 지루해 보일지라도”(Erdrich 2012b:230), “미래를 위해”(Erdrich 2012b:230) 아버지가 중요한 작업을 해온 것이라 새롭게 이해한다. 바질은 아들 앞에서 상한 캐서를 요리가 흘러내리더라도 무너지지 않고 탄탄하게 구조를 떠받치는 포크와 나이프들을 보여주며 자신이 하는 작업이 바로 그런 것임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 “이 포크와 나이프가 바질로 하여금 부족의 더 나은 미래를 구축

하도록 돕는 법적 수단들을 나타낸다”(Tharp 2014:31)는 사프의 해석을 염두에 두면, 조가 새롭게 이해하고 내면화하려는 부족 법조인의 역할은 바로 이 캐서를 장면에서 탄탄한 식기 구조물로 상징화되는 법적 수단들—즉, “우리의 주권을 위한 탄탄한 기초”(Erdrich 2012b:229)—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일이다. 카든(Carden 2018:113)도 조가 오지브웨 자주권을 위한 견고한 기초를 세우는 바질의 작업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 해석한다. 어쩌면 조는 보로우스(Borrows 2010:227)의 위인디구 이야기 속에서 법률가 손자에게 당부하는 노코미스(Nokomis) 할머니의 말—현재에도 여전히 이 땅에 위인디구들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기에, 사람들이 그 존재를 가벼이 보아 넘기지 않도록 일깨워주는 것—을 수행할지도 모른다. 부족의 법률가로서 조가 과거 바질이 해온 작업처럼 향후 연방 의회를 설득해 연방 인디언법을 수정하는 일에 일조하든, 식민주의에 대해 경계하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어떤 법적 활동을 하든, 그는 사법권의 혼란과 미로를 교활하게 이용해 법망을 피해가는 또 다른 린든이 생기지 않도록 일할 것이다.¹²⁾

12) 어드릭은 『라운드 하우스』의 후기에서 2010년에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이 서명한 ‘부족 법과 명령에 관한 법령’(The Tribal Law and Order Act)을 언급하는데, 이것은 작가의 기대를 시사한다. 물론 오웬스에 따르면 어드릭이 기대했던 이 법도 나름의 문제점이 있다. 왜냐하면 이 법안은 그동안의 연방 인디언법에서 많이 진일보했지만, 사실상 부족이 단지 사법권을 주가 유지하던 연방이 유지하던 선택하는 권한만 부여받는 한계를 가지며 그동안의 사법관할권의 미궁을 해결하지 못하고 가중시키기 때문이다(Owens 2012:519-522). 『라운드 하우스』가 출간된 지 1년 후 오바마 대통령은 ‘여성을 향한 폭력에 관한 재허가 법령’(the 2013 reauthorization of 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에 서명한다. 이 법도 부족 내의 중대 범죄자가 부족 토지에 거주하거나 고용되어 부족과 충분한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가 아닌 비(非)원주민을 기소할 순 없지만, 그래도 부족이 원주민 여성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비(非)원주민을 기소하는 것이 부분적으로 허락되어 부족의 주권이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변화이다(United States 2015, Szeghi 2018:421, Fletcher 2017:109). 어드릭이 『뉴욕 타임스』 특별 기고란에서 이 VAWA 법을 역시 지지한 것을 염두에 두면(Szeghi 2018:421), 작품 속의 조는 법의 분야에서 부친이 하려 했던 시도들, 즉 연방 의회를 설득하여와 같은 법들의 변화를 도모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 예견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조는 린든과 마주쳐 격분해 심장 발작을 일으킨 바질이 회복되던 날 부친의 셔츠를 입는다. 어른이 된 조는 미네소타 대학교 로스쿨에 합격 하길 바랄 때, 이후 변호사 시험을 볼 때도 부친의 타이를 착용했다고 고백한다. 검사로 근무할 때도 배심원 재판이 있는 마지막 주엔 늘 부친의 타이를 맨다. 이것은 조가 범조인 아버지에게 대한 이해와 존경심을 가지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며, 나아가 조가 범조인 아버지의 방식을 융통성 있게 받아들여 원주민의 적극적 생존을 위해 이용하는 지혜가 생긴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여기에서 아들인 조는 부친의 의상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릴 함께 묶어줄 것이다”(Erdrich 2012b:245)라고 말하는 것처럼 부친인 바질과 연대의 끈을 만들며, 이 끈은 아들과 아버지의 간극을 넘어 서로 경계가 해소되는 뫼비우스의 띠와 같아진다. 쿠루프(Kurup 2015:3)은 어드릭의 문학에 중심적인 두 주제가 “공동체와 연결”이라 언급했는데, 조와 바질은 뫼비우스 띠 같은 교차와 연결을 ‘타이’의 은유를 통해 보여주면서 이 주제와 부합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와 바질이 나타내온 두 사법적 정의의 영역, 그리고 그 두 영역의 뫼비우스적 교차의 고리는 모두 제럴딘 같은 어머니의 생존, 나아가 부족공동체의 생존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노력 때문에 빛어진 결과라는 점이다.

더불어, 바질과 조가 보여주는 뫼비우스 띠 같은 변화, 즉 서로의 맞은편과 대립 관계가 해소되는 운동의 중심엔 제럴딘에 대한 이들의 사랑—아내에 대한 바질의 사랑과 어머니에 대한 조의 사랑—이 있다. 디어(Deer 2009:152)에 따르면, “여성들—[인디언] 네이션의 생명을 잉태하는 자들과 생명을 주는 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네이션의 안녕에 중심적인 것이다.” 바질과 조가 제럴딘을 사랑하는 것은 그녀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아니시나아베 공동체의 적극적 생존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이다.

IV. 결론

쿠릅(Kurup 2015:70)은 조가 향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물음에 두 가지 가능성을 제기하는데, 그 상반된 가능성 가운데 하나로서 그가 만일 소심하고 절제하며 지엽적 역할에 만족하는 것으로 보였던 바질, 즉 조가 초기에 바라본 바질의 전철을 밟는다면, 독자는 아니시나아베 공동체의 생존을 크게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필자는 여기에서 조가 이들이 제기한 또 다른 가능성, 즉 역사의식을 가지고 변화를 법제화하려 체제 속으로 들어가 노력할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라 기대한다. 그리고 그런 가능성은 이분법적으로 전통적 아니시나아베 정의 v. 현대 부족법이라는 대립적 관계, 혹은 연방법/주법/부족법/전통부족법이 엄밀히 구분된 관계가 아니라 부족의 오래된 정신, 문화를 존중하고 아우르며 자주권을 부여하는 유연한 관계 속에서 모색될 수 있다. 부족의 주권을 위해 현대 (연방, 주, 부족 모두의) 법을 변화시키는 가능성만이 조가 속해 있는 원주민 공동체의 적극적 생존을 도모할 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저자가 간절히 고대하는 길이기도 할 것이다.

지금까지 필자가 주장했듯이, 결국 과거를 회상하며 이야기하는 성년의 서술자 조는 같은 법조인으로서의 부친을 이해하며, 과거 자신이 추구했던 전통적인 부족법인 아니시나아베 정의와 현대 부족법 간의 교섭, 조정, 연결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것으로 암시된다. 이 가운데 독자는 현대 부족법과 아니시나아베 정의가 뫼비우스의 띠 같은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며, 쿠츠 부자의 상호이해와 연결, 유대 속에서 아니시나아베 공동체의 적극적 생존을 그려볼 수 있다. 결국 『라운드 하우스』를 읽으면 독자는 어머니와 아내로서의 제럴딘에 대한 사랑을 중심으로 조와 바질의 두 사법적 정의가 맞물려 뫼비우스의 띠, 혹은 ‘타이’의 원을 형성한다는 것을 보게 된다. 버펄로 여인을 기리는 둥근 모양의 성지 라운드 하우스처럼 그 뫼비우스의 고리-타이도 라운드 하우스가 된다.

비록 원주민 여성 메일라는 린든에 의해 살해되고 매장된 것으로 그

려지지만, 그녀가 낳은 딸아이 타냐(Tanya)는 여전히 살아있다. 이 아기는 곧 아니시나아베 원주민 공동체, 그리고 그중에서도 특히 원주민 여성의 미래를 상징한다. 이를 통해 어드릭은 이 아이가 메일라 혹은 제럴딘처럼 백인 남성의 (성)폭력 앞에 무참하게 희생당하는 현실이 아니라 이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법과 제도적 장치 안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며 (신)식민주의적 상황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변화는 바질과 조 같은 부족 법률가의 정의 추구하고 적극적 생존의 끈기, 인내 속에서 가능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소설 속 라운드 하우스는 부족, 주, 연방의 사법관할권이 중첩되어 겹쳐 있는 공간으로서 분쟁지역이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해석의 차원에서 『라운드 하우스』는 소설 속 라운드 하우스처럼 원주민 문화에 대한 관점과 태도 면에서 다양한 분쟁적 해석을 촉발한다. 한 예가 앞서 언급했던 대로 이 소설이 위인디구 전통에 대해 거리를 두는 저자의 태도를 보여준다는 해석이다. 이에 대한 필자의 반론을 반복하지 않고, 다음의 반문으로 글을 마무리한다. 라운드 하우스가 여러 관할권이 맞닿은 분쟁지역이긴 하지만, 위인디구 정의가 신중히 올바른 방법으로 추구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성지이듯이, 『라운드 하우스』 소설 자체는 해석의 분쟁지점들 중앙에 위치하면서 “이 땅에 정의가 너무나도 대충 적용되었기에”(Erdrich 2012b:315) 현대에도 남아있는 식민주의적 위인디구—그것은 육화된 괴물이라기보다 마음을 쪼먹고 황폐화시키는 그릇된 관념과 태도들—에 맞서는 정의의 추구를 도모하는 북미원주민 문학의 성지 아닐까?

■ 참고문헌

- 강용기(2017), 「루이스 어드릭의 『라운드 하우스』에서 ‘위인디구 정의’의 재해석」, 『영어영문학21』 30권 1호, 21세기영어영문학회, 5-23.
- 브라운밀러, 수전/박소영 역(2018), 『우리의 의지에 반하여: 남성, 여성 그리고 강간의 역사』, 오월의 봄.
- Borrows, John(2010), “Windigos,” *Drawing out Law: A Spirit’s Guide*, Toronto: U of Toronto P, 216-227.
- Brightman, Robert A(1988), “The Windigo in the Material World,” *Ethnohistory* 35.4, 337-379.
- Brightman, Robert A., David Meyer, & Lou Marano(1983), “On Windigo Psychosis,” *Current Anthropology* 24.1, 120-125.
- Butt, Daniel(2015), “Historical Justice in Postcolonial Contexts: Repairing Historical Wrongs and the End of Empire,” *Historical Justice and Memory*, ed. by Klaus Neumann and Janna Thompson, Madison: U of Wisconsin P, 166-184.
- Carden, Mary Paniccia(2018), “‘The Unkillable Mother’: Sovereignty and Survivance in Louise Erdrich’s *The Round House*,” *Studies in American Indian Literature* 30.1, 94-116.
- Castor, Laura Virginia(2018), “Louise Erdrich’s *The Round House*: Restorative Justice in a Coming of Age Thriller,” *Nordlit* 40, 31-49. <https://septentrio.uit.no/index.php/nordlit/article/view/4273/4088> (검색일: 2021.01.06.)
- Churchill, Ward(2003), *Perversions of Justice: Indigenous Peoples and Angloamerican Law*, San Francisco: City Lights.
- Deer, Sarah(2009), “Decolonizing Rape Law: A Native Feminist Synthesis of Safety and Sovereignty,” *Wicazo Sa Review* 24.2, 149-167.
- Erdrich, Louise(2008), *The Plague of Doves*, New York: Haper Perennial,

2008.

- Erdrich, Louise(2012a), “In ‘House,’ Erdrich Sets Revenge on a Reservation,” *Author Interviews*, NPR, Radio. <https://www.npr.org/2012/10/02/162086064/in-house-erdrich-sets-revenge-on-a-reservation> (검색일: 2021.01.15.)
- Erdrich, Louise(2012b), *The Round House*, New York: HarperCollins, 2012.
- Evans, Dylan(1996), *An Introductory Dictionary of Lacanian Psychoanalysis*, Hove and New York: Brunner-Routledge.
- Fletcher, Matthew L. M.(2017), “Anishinaabe Law and *The Round House*,” *Albany Government Law Review* 10, 88-111.
- Friedland, Hadley Louise(2018), “The Wetiko as a Legal Concept of Category,” *The Wetiko Legal Principles: Cree and Anishinabek Responses to Violence and Victimization*, Toronto: U of Toronto P, 20-49.
- Kurup, Seema(2015), *Understanding Louise Erdrich*, Columbia: U of South Carolina P.
- Owens, Jasmine(2012), “‘Historic’ in a Bad Way: How the Tribal Law and Order Act Continues the American Tradition of Providing Inadequate Protection to American Indian and Alaska Native Rape Victims,” *The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102.2, 497-524.
- Sevillano, Laura Roldán(2016), “From Revenge to Justice: Perpetrator Trauma in Louise Erdrich’s *The Round House*,” *Revista de Estudios Norteamericanos* 20, 137-158.
- Szeghi, Tereza M.(2018), “Literary Didacticism and Collective Human Rights in US Borderlands: Ana Castillo’s *The Guardians* and Louise Erdrich’s *The Round House*,” *Western American Literature* 52.4, 403-433.

- Tharp, Julie(2014), “Erdrich’s Crusade: Sexual Violence in *The Round House*,” *Studies in American Indian Literature* 26.3, 25-40.
- United States(2015), Dept. of Justice, *Violence Against Women Act (VAWA) Reauthorization 2013*, N.p., 26 Mar. <https://www.justice.gov/tribal/violence-against-women-act-vawa-reauthorization-2013-0>
(검색일: 2021.02.17.)
- Vizenor, Gerald(2008), “Aesthetics of Survivance: Literary Theory and Practice,” *Survivance: Narratives of Native Presence*, ed. by Gerald Vizenor, Lincoln: U of Nebraska P, 1-23.

❖ ABSTRACT

A Moebius Strip for Survivance:
The Relationship between Law and Anishinaabe
Justice in Erdrich's *The Round House*

Jeong, Jin Man
Yeungnam University

This essay explores how Louise Erdrich's *The Round House* interrogates a jurisdictional maze in the US legal procedures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Native Women from pervasive non-Indian male sexual violence against them. Moreover, it also explores how the novel envisions their active survival by transforming the legal milieu. Arguably, the author questions the incompatibility of justice/law as shown in the deficient legal treatments of Linden (a white rapist of Geraldine). Furthermore, she advises how the legal environment should change through the negotiation of traditional/modern tribal laws. In addition, the author mentions why the unjust federal Indian laws should be altered urgently. For this study, first, this essay focuses on the tension between an Ojibwe tribal judge, Bazil Coutts (the victim's husband, a representative of modern tribal law, whose legal power was severely declined by a series of federal Indian laws) and Joe (the victim's son who appealed for traditional Anishinaabe justice or Wiindigoo justice, which was an unavoidable solution for protecting his mother). The author shows a sympathetic attitude toward Joe as he seriously wanted to remove Linden, the insatiable white Wiindigoo with colonial greed and violence. Second, this essay elucidates the metaphor of tie as a moebius strip, which allows Joe to feel connected

to Bazil in terms of their legal perspectives. Through the metaphor, the reader envisions Joe as a future tribal lawyer, who is supported by his community and will do his best to make American lawmakers hear his appeal for restoring the Natives' sovereignty.

Key Words : Erdrich, *The Round House*, Anishinaabe justice, wiindigoo justice, sexual violence, jurisdictional maze

- 논문접수일 : 2021. 05. 10
- 심사완료일 : 2021. 06. 01
- 게재확정일 : 2021. 06. 02